

# ‘교양으로서의 문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강용훈 (인천대)

## 1. 기초학문으로서의 문학을 바라보는 입장

지난 2021년 발의되었던 「기초학술기본법안」은 기초학문을 “인간, 사회, 문화,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초’는 “학문적 성과의 적용, 응용, 교육과 확산의 근간이라는 뜻인 동시에 민주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누릴 풍요로운 정신적·물질적 삶의 기반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sup>1)</sup> 이러한 규정에 입각했을 때 문학은 역사학, 철학 등과 함께 기초학문을 구성하는 핵심적 학문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고 이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그리고 때로는 문학적 작품을 창작하며 인간, 사회, 문화, 자연을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문으로서의 문학’과 ‘교양으로서의 문학’을 함께 논의할 때는 다소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연구자는 한국의 ‘교양교육’에 독일어 “Bildung”의 번역어 의미, 영어 ‘general education’, 또는 ‘liberal arts education’의 번역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교양교육’과 관련된 개념을, 내재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교과’(liberal arts)를 원형으로 하는 ‘자유’ 강조형 교양교육 개념, ‘인문’ 강조형 교육 개념,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공통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기초 학업 교육”을 강조하는 ‘기초 강조형’ 교양 교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sup>2)</sup>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이 ‘기초 교육원’과 ‘교양 교육원’으로 혼재되어 있고, 2010년대 이후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다르마칼리지’ 등의 독립된 명칭의 기관이 만들어진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세 가지 개념을 현재의 교양교육에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들 중 어느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다소 성격이 다른 제안들, 이를테면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문학 교과는 기초학문으로서 학술적 보편성과 성과를 남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sup>3)</sup>과 “교양 현대문학 교육 자체를 기초도구과목과도, 전공 학문과도 독립된 영역에 구축”하여 ‘바람직한 시민’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자는 제안<sup>4)</sup>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제안이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두 제안에서 제기된 강의 유형을 ‘기초 교양’(혹은 ‘핵심교양’)과 ‘심화교양’의 형태로 구분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의 언어를 이해하고, 미메시스(재현), 서사와 플롯, 시점과 화자, 비평방법론, 문예사조를 통해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sup>5)</sup>을 교육하는 것은 특히 문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학’에 초점을 맞추는 교양교육은 대학생들이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여러 실존적 관

1) 김명환, 「한국 고등교육과 학문의 도약을 위한 실마리-기초학문 학술정책과 「기초학술기본법」」, 『안과 밖』 53, 2022, 239쪽.

2) 백승수, 「교양교육의 명칭 재정립을 통한 교양교육의 재개념화」, 『교양교육연구』 13(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145~147쪽.

3) 안미영, 「대학의 교양교과로서 ‘문학’ 교육의 현황과 전망」, 『교양교육연구』 15(4),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65쪽.

4) 김건우, 「교양 현대문학 교육이라는 ‘제도적’ 문제」, 『반교어문연구』 49, 반교어문학회, 2018,

5) 안미영, 65쪽.

심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문학과 의 만남’을 통해 제공하는 활동이 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김우창은 「문학의 즐거움과 쓰임」에서 문학의 즐거움을 우리들의 실존적 관심에서 찾으며, 이를 어린아이가 즐겨 듣는 이야기 안에 인간의 보편적이고 실존적 관심이 담겨 있는 것과 연결한 바 있습니다. 김우창은,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배우는 것은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 방안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어떤 태도”로 설명합니다. 그 태도는 김우창이 언급했듯이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태도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또는 인생 전체에 대한 태도”<sup>6)</sup>일 수 있습니다. 문학교육이 바람직한 시민을 양성하는 작업과 연결된다면, 그 작업은 구체적 행동 방안이 아니라, 김우창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태도를 학생들과 교수자가 함께 배워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2. 학과에서의 문학교육과 교양으로서 문학교육의 차이

현재 대학에서의 ‘문학교육’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위기’ 담론은 1990년대부터도 제기되었지만, 최근 제기된 위기는 ‘인공지능 기술’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예측되는 대학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대한 회의로 촉발되었기에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결과가 인문학 관련 상당수 학과의 폐지 내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기에 대학에서의 문학 교육에 대한 고민이 전공보다는 ‘교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의 대학과는 달리, 현재는 대학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에 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교육’도 일정한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1학년 과정에서 입문 과목(「한국문학의 이해」) 등을 배치하고 2~3학년 과정에서는 ‘문학사’와 ‘문학의 개별 장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업(「현대문학사」, 「현대소설론」, 「현대시론」, 「현대희곡론」 등)을 개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수업들 중 일부는 앞에서 언급했던 ‘기초교양’으로서의 ‘문학교육’의 내용 범주들, 즉 ‘서사와 플롯’, ‘시점과 화자’ 등의 문학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과의 문학교육’과 ‘교양으로서 문학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문학교육을 수행할 때, 특히 그 대상이 되는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 ‘한국문학’, 혹은 ‘한국학’이라는 범주에 어느 정도의 초점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양으로서의 문학교육’은 “민족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획득한 관행들”<sup>7)</sup>을 반성하고 그 관행들을 재편하여 ‘세계문학’의 틀 속에서 ‘한국문학’을 함께 다룰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 상당수의 ‘한국문학’ 관련 학과에서 오늘날 ‘문학’ 관련 교육은 상당 부분 ‘문예 창작적인 측면’, 혹은 ‘문화(콘텐츠)적 측면’ 등의 실기적이고 응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속한 학교의 경우도 2학년 대상 과목으로 ‘시창작연습’, ‘희곡시나리오창작연습’, ‘소설창작연습’ 등의 수업을 개설하고 있고, 3학년 이후 학생들을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의 이해’, ‘문학과 문화콘텐츠’, ‘한국문학과 영화’, ‘대중서사장르론’, ‘현대문학과 문학

6) 김우창, 「문학의 즐거움과 쓰임」, 『김우창 전집 3-시인의 보석』, 민음사, 1993, 이하 이 글과 관련된 인용 부분은 쪽수만 표시하려고 한다.

7) 황종연, 「탕아를 위한 국문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 127, 국어국문학회, 2000, 47쪽.

론’, ‘저널리즘 글쓰기’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변하고 있는 문화적 지형 속에서 제기된 학생들의 다층적 요구사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루어진 것이고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문학’ 관련 교육의 초점이 학생들의 향후 진로 선택에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표에 맞춰지다 보면, 바람직한 시민을 양성하는 활동으로서의 ‘문학교육’과는 조금씩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양으로서의 문학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현재 상당수 대학의 ‘한국문학’ 관련 학과 내에서 ‘문학교육’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 3. 교양으로서 문학교육의 방향: ‘INU 세미나’ 과목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는 교양교육 개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023년도부터 ‘INU 세미나’ 과목들을 신설했습니다. ‘INU 세미나’는 교수자가 1권, 혹은 동일 주제로 3권 내외의 명저를 선정하여 24명 정원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심화 독서와 심화 토론, 그리고 ‘세미나식 강의’를 설계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끌어내는 과목을 지칭합니다.

‘INU 세미나’ 과목은 편성체계를 ‘문학과 예술’, ‘철학과 역사’,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의학’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sup>8)</sup> 이 중 ‘문학과 예술’ 관련 과목으로는 다음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아에서 아모르파티>, <프랑켄슈타인과 검은고양이를 만나다>, <문학, 욕망의 윤리를 말하다>. 이 중 현대문학 연구자이기도 한 최혜림 선생님이 개설한 <문학, 욕망의 윤리를 말하다>는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 베른하르트 솔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단편소설 최윤의 『회색 눈사람』과 조해진의 『하나의 숨』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문학이 탐구하고 제시한 인물의 욕망 실현 과정과 윤리적 태도”를 복합적으로 바라보며 학생들과 함께 “인간의 깊이를 다층적으로 탐구”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sup>9)</sup>

이러한 강의 내용은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실존적 관심과 비평적 언어가 교차하는 ‘욕망’이라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을 연결하여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사랑’, ‘젠더’, ‘정의’ 등의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INU 세미나’ 과목은 복수의 강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천대의 기초교육원 선생님들이 직접 ‘포럼’을 열고 그 ‘포럼’에서 스스로가 고민한 강의안을 미리 발표한 후 그 중 잘 준비된 강의안을 선정하여 강의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연구와 교양교육이 분리되어 있는 풍토에서 벗어나는 움직임 또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문학의 즐거움과 쓰임」에서 김우창은 이야기를 듣거나 보는 독자들이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주체적 능력을 경험하고 재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덧붙여 이러한 자기 확인의 과정은 “자신의 자유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략”(339)을 습득하는 작업임을 강조합니다. 교양으로서의 문학교육은 수강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체적 능력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들, 이를테면 교수자와 학생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세미나식 교육’ 등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이상 ‘INU 세미나’ 과목과 관련된 설명은 양현진 외, 「2023년 교양 교과과정 혁신안 연구」,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2022. 참조.

9) 이상의 내용은 최혜림 선생님의 <문학 욕망의 윤리를 말하다> 강의계획서 내용의 일부를,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소개한 것임을 밝힙니다. 추후 완성된 원고로 제출할 때는 수업을 실제 진행한 선생님과 인터뷰를 담으려고 계획 중입니다.